



It Has Always Been The Beginning



나를 다시 부른 것은 원시였다

문의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02-541-5701 www.arariogallery.com
이미지 제공 ©Estate of JUNG Kangja &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강자 개인전 〈나를 다시 부른 것은 원시였다〉를 개최한다. 정강자는 한국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여성 아방가르드 작가이다. 국내 1세대 행위예술가로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1960-70년대 한국 실험 미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랜 기간 국내 화단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정강자는 예술을 삶 자체이자 그 목표로 삼으며 타계 직전까지 작품활동을 지속했다. 이번 개인전은 2018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및 천안에서 동시 개최한 회고전 이후 5년 만에 마련한 자리다. 정강자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작품세계에 주목하여, 강렬하고 풍부한 색채와 특유의 도전 의식이 돋보이는 회화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작가는 중남미,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등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며 이국적인 풍경과 인물들을 화폭에 담았다. 순수한 자연과 원시의 삶을 찾아 떠난 여정이었다. 낯선 세상을 탐험하며 마주한 장면들에 자신의 꿈이 투영된 환상적 이미지를 접목하여 회화로 기록했다. 이 시기 화면은 넓은 세계를 누비며 얻은 시각적 경험을 드러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더 깊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다채로운 색상과 그만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구성으로 독자적인 초현실적 화면을 제작해 낸 시기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더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형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한복의 형상을 재 해석하여 조형 요소로 활용하는 등 모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소재에 집중한 면모가 두드러진다. 화면 속 다양한 상징들은 작가의 삶과 철학, 여성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강렬한 감수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 01_ 연인(The Lovers), 2006, Oil on Canvas, 130×97cm
- 02_ 거미(Spider), 1995, Oil on Canvas, 97×131cm
- 03_ 달과의 대화(The Conversation with the Moon), 1997, Oil on Canvas, 73×60cm





2000년대는 원시적 풍경을 바탕 삼아 더욱 깊고 내밀한 내면세계를 탐구해 나간 시기다. 자신의 분신이자 아이콘이라고 여긴 아누스(Janus)의 형상이 화면에 자주 보인다.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를 상징하는 원에 인위적인 직선을 결합해 만든 반원은 말년의 화폭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요소다. 모든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환원하는 실험에 집중한 흔적이 엿보인다. 회화의 언어로써 당대의 억압적 현실과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해소하려는 바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화면 속 무한한 자유 공간에서 펼쳐 낸 상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해방하고자 한 것이다. 정강자는 작고 직전까지 작업에 전념했다. 그가 남긴 화면들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적 시기를 몸소 겪은 한 여성 예술가의 삶과 열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 04_ 도시의 여인들(City Women), 1996, Oil on Canvas, 97×131cm
- 05_ 무제(Untitled), late 1990s, Oil on Canvas, 130×162cm
- 06_ 새와 여인(The Bird and a Woman), 1997, Oil on Canvas, 61×73cm
- 07_ 무제(Untitled), 2000, Oil on Canvas, 61×73cm
- 08_ 연못 위의 모자(Mother and Son on a Pond), 2007, Oil on Canvas, 61×73cm
- 09_ 숲에서의 오수(Nap in the Forest), 2004, Oil on Canvas, 98×131cm